

# 하림, 지역상생 행보 속도 낸다

### 농가상생 계열화 성공 기반... 30대 기업으로 성장 식품단지 조성, 익산공장 현대화 등 전북에 6천억 투입 전북 본사 그룹 지주사 제일홀딩스 상장 지속 투자 기대

(주)하림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지역과의 상생 경영, 농가와 상생경영, 준비와 나눔 경영, A방역대책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4가지 주제로 각 언론사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언론사 언론인 30여명과 하림그룹내 임직원인 이문용 대표이사, 정문성 부사장, 정호석 상무, 문경민 상무 및 송기택 수석부장의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문용 대표이사의 인사말씀 이후 정호석 상무, 정문성 부사장, 문경민 상무 순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전북에서 양계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30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과 그룹의 모기업인 (주)하림이 일차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북 익산에 본사 소재지를 둔 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 (주)제일홀딩스가 한국거래소(코스닥)에 공식 상장돼 전북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의 하림그룹의 상징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함께 (주)하림이 익산 망성의 본사 및 공장을 현대화하는 대대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주)하림식품도 익산 4산업단지(익산 합일)에 대규모 식품공장 조성에 나서는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투자를 확정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하림이 지난 1978년 황등농장으로 출발한 이래 계열화 시스템을 발전시켜 투기성 한탕주의 사육업이었던 우리나라의 닭고기 산업을 안정적인 고소득 식품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주)하림의 계약사육농가들은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향상돼 사육규모가 2000년 이후 연평균 8.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의 연평균 사육소득(3회전 이상 육계 사육)이 2000년 5,000만원에서 2010년 7,400만원, 2015년 1억7,100만원, 지난해 1억8,1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2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림은 또 익산시 망성면 현 공장부지에 1,790여억이 투입되는 공장 현대화 공사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최신의 생산설비와 각종 첨단 부대시설들을 갖출 계획이다.

건축공사 한창 진행 중인 익산공장



(주)하림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농가와 상생경영, 준비와 나눔 경영, A방역대책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4가지 주제로 각 언론사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는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

현대화 사업은 사실현대화로 국내 최고의 품질의 닭고기 생산과 1인 소비시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패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단량 제품 및 고급 가공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익산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 120여명과 이에 따른 직접 고용비 연간 1,050억원, 간접고용비(외주 및 협력업체) 연간 1,000억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현재 650여 계열농가는 향후 2020년 800여 농가로 늘어나고 농가 평균 사육소득이 2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익산공장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지방세와 법인세도 연간 60억~8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주)하림식품은 지난 2013년 전북도, 익산시와 투자협약

을 체결했던 합일 4산업단지 내 종합식품단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하림식품은 오는 2019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간편식 공장과 천연조미료 공장 등 5개 공장을 준공해 고용 창출 효과만 1,000명이 넘는 글로벌 종합식품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창립 31년을 맞은 하림그룹이 사육농가와 상생하는 계열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하림을 모태로 30대 대기업집단에 진입했다"며 "이 모든 것이 지역민과 소비자들의 성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원 기자

## 군산 청년몰 '물랑루즈201' 오픈

### 댄스홀 컨셉 유럽풍 카페 모습 재현 체험형 복합테마공간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군산시는 군산공설시장 2층에 문화·쇼핑·볼거리가 융합된 복합몰 형태의 전통시장 청년몰 '물랑루즈 201'을 청년상인모집·창업교육·컨설팅·시설공사 등 1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7일 군산공설시장 북문 앞 광장 및 2층 청년몰에서 본격 개장을 알리는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은 군산공설시장 2층 북편에 754m 규모로 창업정포 20개, 키즈존, 세미나실, 체험관, 무대·광장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군산의 상징 근대문화유산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유럽의 근대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테마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소였던 '물랑루즈' (댄스홀)를 기본 컨셉으로 하여 유럽풍 카페 모습을 재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체험형 복합테마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군산=장 현 기자

## '인생이야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 군산새만금아카데미, 12일 가수 윤항기 씨 초청 강연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할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새만금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는 오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가수 윤항기 씨(사진)를 초청하여 군산시청 대강당(2층)에서 '진실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불우했던 유년시절과, 방황의 청년기, 가수로서의 성공과 목회의 길로 새로운 삶을 얻기까지 인생 과정 등을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진실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항기 강사는 연세대학교 종교음악학과를 졸업했고, 1959년 '정든배'라는 노래로 데뷔하여 '키보이스'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이후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어떡하랴', '장미빛스

카프', '나는 행복 합니다' 등 주옥같은 명곡을 히트시키면서 1960~70년대 작곡가 겸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여 한국 대중음악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가수 윤복희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여러분(작사/작곡 윤항기)'은 그의 음악 인생 하이라이트와 같은 곡으로 손꼽힌다.

현재는 한국예술사관 실용전문학교 학장, 가수, 생명의 소중함을 강연하는 자살예방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정은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번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진실된 삶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00년부터 매월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군산새만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공개강좌로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다음 강좌는 서경덕 교수의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8월 16일 오후 2시 군산시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군산=장 현 기자

## 군산시,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군산시 보건소는 무더운 여름에 해산물 섭취 및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되었을 경우 12~72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복통, 급성발열, 오한, 혈압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며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전형적 보건소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며,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저장하고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장 현 기자

## 미래비전 수립 '익산시 희망농정위' 출범

### 농업인 자치 협의체 역할 8개 분과 75명으로 구성 정책방향 설정·사업 발굴

익산시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인 중심의 협치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7일 오전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시의장, 김석준도 삼락농정위원장, 조상규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선도농업인과 농민단체, 농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는 농민정책, 식량, 농촌활력, 유통, 식품가공, 축산 등 농업 분야별 8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돼 분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한

다. 20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과 농업·농촌·농민의 희망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시는 지난 1월 미래농정국이 신설된 이후 희망농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과제로 발굴했다. 농민연대 등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여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수립

하고, 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거버넌스 행진으로 대한민국 농정의 미래를 이끌어 가자는 의견을 모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농민단체와 선도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농업인 자치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희망농정위원회가 농업인 주도의 방향성 농업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농업을 통해 익산시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며 "농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농정거버넌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성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농정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익산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성당포구체험마을과 용머리리역 상생협력관, 농업인교육관을 오가며 각 분과별 혁신과제를 토론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기회로 도·농 복합도시인 익산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정혁신 개선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익산=장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